中國語文學 第43輯(2004. 6) 197-225 쪽

<離騷>의 抒情主體 「余」는 君子인가?

全 英 蘭*

<目 次>

Ⅰ. 序 論
Ⅱ. 孔子의 君子觀
Ⅲ. 孔子의 君子觀에 비춰본 <離騷>의 抒情主體 「余」
Ⅳ. 結 論

Ⅰ. 序 論

屈原의 《楚辭》에 대한 평론은 漢代로부터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해왔다. 그 하나는 굴원의 '怨'을 긍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굴원의 '怨'을 비판하는 학설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劉安과 司馬遷·劉協·劉知幾 등이 있으며 후자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揚雄과 班固·顔之推·孟郊 등이 있다. 양웅은 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군자는 때를 만나면 크게 행하여야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은신할 수 밖에 없으니, 때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함은 운명인데, 구태여 몸을 던질 필요가 있는가(君子得時則大行, 不得時則龍蛇, 遇不遇命也, 何必沈身哉) 《漢書·本傳》" 양웅의 이 말은 굴원이 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는 굴원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怨'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굴원 시

* 이 논문은 2003년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대의 지식인에게는 대체로 군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屈原과 그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가? 현재까지 그의 작품 외에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이 전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국은 그의 작품이 내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서 그 원인이 발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작품은 屈原의 인생역정과 관련이 깊은 <離騷>와 <九章>이라 생각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屈原의 대표작이며 장편으로 敍事的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離騷>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人稱 獨白體로 쓰인 그의 대표작 <이소>의 서정주체 「余」[1]가 당대 중국 지식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군자의 위상을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離騷>는 敍事的 抒情詩로서 374句 2,490字에 이르는 長篇詩이다. 그러므로 <離騷>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다. <離騷>는 1人稱 獨白體 敍述 작품으로 敍述者가 곧 主人公이다. 서정주체 「余」가 1인칭 全知的 視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작품이므로 抒情主體 「余」의 性格이 서사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작품인 <이소>의 서정주체 「余」 역시 115-116구에서 "不吾知其亦已兮, 苟余情其信芳(날 알아주지 않아도 그만이어라, 진실로 내 마음 향기로운 것을)"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여 揚雄이 언급하고 있는 군자상과 괘를 같이하는 자신의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어 본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離騷>의 서정주체 「余」는 자신의 출신배경과 도덕적 품성과 재능 모두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余」의 自負心은 이 시의 첫머리 12句에서 나타나고, 이어서 全篇에 걸쳐 다시 설명되고 확인되고 있다.

1) <離騷>속에서 '나'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한자는 모두 다섯자로써 朕·余·吾·予·我이다. 이후부터 본 작품의 서정주체인 '나'를 기술의 편의상 「余」라고 표시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1. 帝高陽之苗裔兮　　고양 임금님의 후예,
2. 朕皇考曰伯庸　　나의 선친은 백용이라 합니다.
3. 攝提貞于孟陬兮　　섭제격의 해 정월달,
4. 惟庚寅吾以降　　경인의 날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5. 皇覽揆余于初度兮　　선친은 내가 태어난 그 때를 살펴,
6. 肇錫余以嘉名　　비로서 내게 고운 이름 주시니,
7. 名余曰正則兮　　이름은 정칙이라 하고,
8. 字余曰靈均　　자는 영균이라 하였습니다.
9. 紛吾旣有此內美兮　　나는 이처럼 날적부터 고운 품성에,
10. 又重之以脩能　　또한 뛰어난 재능을 더하였으니,
11. 扈江離與辟芷兮　　천궁과 어수리를 걸치고,
12. 紉秋蘭以爲佩　　추란은 엮어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1인칭시점의 독백체로서 서정주체「余」가 곧 서술자인 본 작품에서,「余」는 스스로를 高陽임금님의 後裔인 王孫으로 正則과 靈均이라는 이름과 字에 짝할 수 있는 길한 때에 태어났으며, 江離·辟芷·秋蘭같은 香草에 비유하여 '內美'와 '脩能'을 갖추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余」의 자부심의 주요내용은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余」는 天賦的으로 貴한 存在라는 것. 둘째,「余」는 훌륭한 品性을 지녔다는 것. 셋째로「余」는 뛰어난 能力의 所有者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余」는「余」가 천부적으로 귀한 존재로써 도덕적 측면에서나 능력적인 측면에서나 완벽한 인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그 인품의 고결함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충성심에 대하여 대단히 확고하다(15-16구, 65-76구).

이 싯귀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木蘭·宿莽·蘭·蕙·留夷 등 11가지의 香草와 香木을 심고, 그것을 몸에 두르거나 씹어먹는 것으로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즉 언제나 지속적으로 심신을 연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余」자신의 독백의 형태로 형상화된 <이소>의 서정주체는 곧 중국의 유가들이 지향했던 바의 '군자'의 모습이다.

<이소>의 서정주체「余」는 조국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서술하면서

堯舜과 桀紂를 聖君과 暴君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하였다.

29. 彼堯舜之耿介兮　　저 요임금 순임금은 광명 정직하여,
30. 旣遵道而得路　　애초에 바른길만 좇아 대도를 얻었는데,
31. 何桀紂之猖披兮　　어찌해서 걸주는 그리 제멋대로,
32. 夫唯捷徑以窘步　　오로지 지름길만 따라서 허둥거렸을까요.

堯舜은 바로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학파가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표방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弟子와 再傳弟子들에 의하여 편집되었다고 추정하는 《論語》에는 네 차례에 걸쳐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각 한번과 세 번씩 거론되고 잇다. 이러한 순임금은 <이소>에서 거의 신격화된 이상적인 인물로 등장된다. 「余」는 순임금에게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고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비극을 비유적으로 고발하여 中正의 道를 얻고자 한다. 6단락[2] 40구는 모두 순임금 중화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 32구가 「余」가 중화에게 고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이다. 「余」는 중화에게 고하는 말을 마친 후 "跪敷衽以陳辭兮, 耿吾旣得此中正(무릎 꿇어 옷섶 펼치고 하소연 하였더니, 나는 이미 환하게 중정의 도를 얻었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余」는 유가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인물인 순임금에게 역사적 사건들을 빌어 자신의 고뇌를 고함으로써 자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작가 굴원이 생존했던 그 시대적 상황과 작품자체가 시사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이소의 서정주체 「余」는 당연히 군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받게 된다. <이소>는 일인칭시점의 작품으로 서정주체

2) 본고는 ≪新譯楚辭讀本≫에서 傅錫壬이 설정한 바의 11단락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제1단락: 1-24句, 제2단락: 25-48구, 제3단락: 49-76구, 제4단락: 77-104구, 제5단락: 105-140구, 제6단락: 141-180, 제7단락: 181-212구, 제8단락: 213-256구, 제9단락: 257-276구, 제10단락: 277-332구, 제11단락: 333-374구. 傅錫壬, ≪新譯楚辭讀本≫(第6版, 臺北: 三民書局, 1988.10), 28-54쪽 참조.

자신이 서술자이므로, 서정주체에 대한 분석은 작품의 서사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써 본고는 곧 敍事性 연구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군자에 대한 개념을 《논어》를 중심으로 파악한 후 이에 비추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孔子의 君子觀

현전하는 중국문헌 가운데 君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易·卦爻辭》이고 다음으로 《詩經》과 《(今文)尙書》에 나타난다. 그러나 군자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개념은 공자에 의해 확립된다. 《論語》에서는 군자에 대해 86차례에 걸쳐 논의되면서 이 용어가 107번이나 사용되었다. 이는 군자의 개념확립에 대한 공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그가 추구했던 修己治人의 지향점인 '內聖外王'[3]을 달성할 수 있는 典型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군자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확립함으로써 당대 통치자와 지식인들에게 반드시 덕을 겸비하여야 함을 선언하였다.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배계급과 지식인에 대하여 인식의 혁명을 요구한 강력한 결단이었다.

1. 孔子 이전의 君子 개념

(1) 《易·卦爻辭》에는 군자에 대해 열아홉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군자를 소인과 대칭적인 의미로 사용한 문장은 여섯 번이다.

童觀, 小人無咎, 君子吝. (백성들은 어린 눈으로 보니, 소인에게는 허물하지 않으나 군자에게는 인색하게 대한다.) <觀·初六>

3) 이 '內聖外王'이란 용어는 ≪論語≫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고 ≪莊子·天下≫편에서 처음 나온 용어이나, 이 용어와 개념은 공자가 지향했던 바이며, 후대에 유학자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용하였다.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군자는 무리를 얻고, 소인은 오두막집을 깍아 들어간다 - 결국 거처할 곳을 잃게 된다.) <剝・上九>

小人用壯, 君子用罔, 貞厲. (소인은 건장함을 쓰고 군자는 힘을 쓰지 않으니, 곧게 고집하면 흉하게 된다.) <大壯・九三>

이상의 문장에서 군자는 모두 통치계급의 귀족들을 지칭하며 소인은 일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 즉 《周易》에서 군자와 소인은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詩經》의 군자 개념

《詩經》중에는 군자라는 용어가 62작품상에서 184차례나 사용되었고, 그 개념 또한 다양화 되었다. 林義正은 그의 《孔子學說探微》에서 《시경》에 사용된 군자개념을 네 종류로 정리하였다.[4)]

첫째, 전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칭

君子所依, 小人所腓 <小雅・采薇>

군자가 의지하는 바요, 소인이 비호 받는 바로다.

君子所履, 小人所視 <小雅・大東>

군자가 밟는 바요, 소인들이 우러러보는 바이다.

君子樂胥, 萬邦之屛 <小雅・尙弧>

군자가 즐거워하니 萬邦의 담장이로다.

둘째, 전적으로 인품을 갖춘 자에 대한 지칭

君子無易由言, 耳屬于垣 <小雅・小弁>

君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니, 담장에도 귀가 있다

顯允君子, 莫不令德 <小雅・湛露>

밝고 진실한 군자여, 德이 아름답지 않음이 없도다

4) 林義正, ≪孔子學說探微≫(臺北 東大圖書出版公司 1987), 65-68 쪽; 金秉峘, <先秦儒家之君子觀研究(一): 以≪論語≫爲中心>, ≪중국학보≫36(1996), 301-302쪽에서 재인용.

淑人君子, 其儀一兮. 〈曹・鳲鳩〉
淑人君子여, 그 威儀가 한결같으니

셋째, 인품과 사회적 지위를 겸비한 자에 대한 지칭
未見君子, 憂心奕奕 ; 旣見君子, 庶幾說懌. 〈小雅・頍弁〉
군자를 보지 못해 마음이 심란하고 근심스럽더니,
이제 군자를 만나 마음이 편하고 기쁘도다.

넷째, 남자에 대한 美稱 혹은 지아비에 대해 아내가 사용하는 칭호
未見君子, 怒如調飢 〈周南・汝墳〉
군자를 보지 못한지라 허전하여 거듭 굶주린 듯하노라
旣見君子, 云胡不喜? 〈鄭・風雨〉
이미 군자를 만났으니 어찌 병이 낫지 않으리오?

(3) 《(今文)尙書》의 君子 개념

《尙書・周書》에만 君子가 네 번 출현하고 있는데, 모두 사회적 지위를 지칭하고 있다.

惟截截善諞言, 俾君子易辭, 我皇多有之! (절절히 말 잘하는 기교로 군자의 말을 바꾸게 하는 사람을 내가 크게 많이 두고자 하겠는가!) 〈秦誓〉
庶士・有正・越庶伯君子, 其爾典聽朕敎. (관직이름-서사, 유정 및 여러 백의 군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들어라. 〈酒誥〉
予小臣, 敢以王之讎民・百君子・越友民, 保受王威命明德. (저 미천한 신하는 감히 왕의 원수된 백성들과 많은 군자들 및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위엄스런 명령과 밝은 덕을 받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召誥〉
嗚呼! 君子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 乃逸; 則知小人之依. (아! 군자는 편안함이 없는 것으로 처한다. 먼저 심고 거둠의 어려움을 알고서 이에 편안하면 소인들이 귀의해 옴을 알 것이다.) 〈無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易・卦爻辭》・《(今文)尙書》에서는 군자가 사회적 지위만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詩經》에서와 같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공자는 더욱더 그 개념을 확립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2. 孔子의 君子 槪念

(1) 《論語》에 사용된 君子 槪念의 분류

《論語》에서 군자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107번 인데 그중 85번이 덕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金秉峘은 그의 논문 <先秦儒家之君子觀研究(一): 以 《論語》爲中心>에서 《論語》에 출현하는 군자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김병환의 논문은 중문으로 쓰여졌기에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5]

첫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지칭. 약 10회

君子之德, 風 ; 小人之德, 草 ; 草上之風, 必偃. (다스리는 사람의 기풍은 흡사 바람과 같고, 백성들의 기풍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면 풀은 바람에 따라 그쪽으로 쓰러집니다.) <顔淵12-19>

子游對曰 :「昔者偃也聞諸夫子曰 :『君子學道則愛人 ; 小人學道則易使也.』」(자유가 대답했다.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으니,'벼슬하는 사람이 배우면 仁愛의 마음이 있게 되고 백성들이 배우면 쉽게 지휘를 따르고 말을 잘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陽貨17-4>

둘째, 德을 갖춘 자에 대한 지칭. 약 85회

子曰 :「.....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沛必於是.」(군자가 仁德을 버리면 어떻게 그의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한끼의 밥을 먹는 시간조차도 인덕에서 멀어지지 않으니, 황급한 때에도 인덕과 같이 있고 곤경에 빠져 있을 때도 반드시 인덕과 같이 있다.) <里仁4-5>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공자

5) 같은 논문, 299-309쪽.

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일에 대해서) 합당함을 원칙으로 삼고, 예절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며 겸손한 말로 그것을 이야기 하고 성실한 태도로 그것을 완성하니 참으로 군자로구나!") 〈衛靈公15-18〉

셋째, 도덕성과 사회적 지위를 겸비한 자에 대한 지칭 약7 회

子曰 :「君子易事而難說也 : 說之不以道, 不說也 ; 及其使人也, 器之. 小人難事而易說也 : 說之雖不以道, 說也 ; 及其使人也, 求備焉.」(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밑에서 일을 하기는 매우 쉬우나 오히려 그를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가 기뻐할 리 없다. 그가 사람을 쓸 때는 오히려 각자의 재능과 덕행을 고려하여 임무를 나눈다. 소인 밑에서는 일을 하기는 어려우나 오히려 그를 기쁘게 하기는 쉽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기쁘게 해도 그는 기뻐한다. 그가 사람을 쓸 때는 이것저것 결점을 들어 책망하며 완전무결한 것을 강요한다.") 〈子路13-25〉

子謂子産 :「有君子道四焉 :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공자께서 子産에 대해 평하셨다. "그는 군자의 도에 걸맞는 네가지 행위를 갖고 있으니, 그 자신의 몸가짐이 장엄하고 공경스럽고, 임금을 섬기는데 책임감이 강하고 진지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은혜로웠으며, 백성들을 부리는데 도리에 맞게 하였다.") 〈公冶長5-16〉

넷째, 공자에 대한 지칭. 약 5회

君子不以紺緅飾, 紅紫不以爲褻服. (군자는 감색과 검푸른 회색으로 테를 두르지 아니하고, 적색에 가까운 옅은 붉은 색과 자줏빛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鄕黨10-6〉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陳亢退而喜曰:「問一得三: 聞≪詩≫, 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진강이 공자의 아들인 백어에게 물었다. "그대는 선생님과 같이 계시니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전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강은 돌아가서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한가지 일을 물어서 셋을 알게 되었구나. 시를 알게 되었고, 예를 알게 되었으며 또 군자가 그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다.") 〈季氏16-13〉

(2) 孔子가 확립한 君子의 개념

공자는 군자를 한마디로 "君子不器(爲政2-12)"라 하였다. 《論語集注》에서는 "그릇은 각기 그 용도에 맞춘 것으로 서로 통용될 수는 없다. 덕을 이룬 선비는 몸을 갖추지 않음이 없으므로 쓰임에 있어서도 두루 감당해 내지 못함이 없으니, 특별히 한가지 재주와 예능을 갖춘 것이 아니다."라고 주석하고 있다.[6] 하나의 그릇은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덕을 이룬 군자는 어떤 일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아니라 모든 재능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쓰일 수 있는 완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즉 성인에 가까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문장들 역시 이러한 군자의 완전성을 시사하고 있다.

> 子曰:「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박함이 화려함보다 많으면 거칠어 촌스러움을 면하기 어렵고, 화려함이 소박함보다 많으면 浮虛함을 면하기 어렵다. 화려함과 소박함이 적당히 배합되어야 비로소 군자인 것이다.") <雍也6-16>
>
> 子曰:「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광범하게 문헌을 학습하고 다시 예절로 제약하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雍也6-25>
>
> 子曰:「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子貢曰:「夫子自道也!」(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행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거늘,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어진 이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아니하며, 용감한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공이 말하였다. "(저 세가지 미덕은) 선생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이다.") <憲問14-30>

논어에는 이러한 완전한 인간의 의미로 보다 빈번히 사용된 개념이 있으니 바로 '仁者'다. 宰我가 공자에게 '인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군자로서 대답하였다.

6) "器者, 各適其用而不能相通. 成德之士, 體無不具, 故用無不周, 非特爲一才一藝而已." 朱熹, ≪四書章句集注≫(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96.9), 57쪽.

宰我問曰 :「仁者, 雖告之曰:『井有仁焉。』其從之也?」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재아가 물었다. "인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우물에 한 어진 사람이 빠졌다'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따라 내려가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래야 한단 말이냐? 군자는 속아서 우물가로 가서 사람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빠지지는 않는다. 그는 잠시 속을 수는 있으나 불합리한 일로 어두워질 수는 없다.") <雍也6-24>

즉 孔子는 仁者는 곧 君子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본 <里仁>편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子曰 :「.....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沛必於是.」<里仁4-5>

그러면 仁者는 어떤 사람인가? 공자는 "대저 어질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도를 세우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도를 세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자신의 도가 세상에서 행해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도가 세상에서 행해 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雍也6-28>"라고 말했다. 즉 인자는 자신이 도를 세우고자 하면 또한 남도 도를 세우도록 해 주어야하며, 자신의 도가 세상에서 행해지기를 바란다면 역시 다른 이의 도도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곧 '내성'과 '외왕'의 경지는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동시에 성취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곧 유가의 최고 목표인 內聖外王의 경지이다. 공자는 바로 군자와 인자라는 완전한 인격체의 개념을 제시하고, 통치자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內聖外王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함께 자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Ⅲ. 孔子의 君子觀에 비춰본 <離騷>의 서정주체 「余」

서정주체 「余」의 행위를 공자의 군자관으로 조명해 봄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다. 한 작품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므로 정확히 양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서술의 편의상 이를 택하였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內聖外王을 향한 「余」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知命'과 '人不知不慍' 그리고 '謙讓'이라는 세가지 덕목에 대한 「余」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1. 肯定的 側面 -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즉 內聖外王은 君子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본 작품에서는 「余」의 당면과제인 救國이 바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항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內聖外王을 향한 「余」의 노력에 맞추었다. <이소>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으므로, 서술의 편의상 본 항에서는 「余」가 노력한 바를 추상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내성외왕을 향한 「余」의 노력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

이점과 有關한 싯귀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汩余若將不及兮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내가 만약 이르지 못하여,
14. 恐年歲之不吾與　　그 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두려워,
15. 朝搴阰之木蘭兮　　아침엔 언덕의 목란을 뽑고,
16. 夕攬洲之宿莽　　저녁엔 모래톱의 숙근초를 캡니다.

49. 余旣滋蘭之九畹兮　　나는 이미 난초를 108이랑에 퍼쳐놓고,
50. 又樹蕙之百畝　　또 혜초를 100이랑 갈았으며,

51. 畦留夷與揭車兮　작약과 게거를 두둑으로 나누고,
52. 雜杜衡與芳芷　두형과 어수리도 섞어 심었습니다.
53. 冀枝葉之峻茂兮　가지와 이파리가 우거지길 바랬으니,
54. 願竢時乎吾將刈　때를 기다려 베려고 하였는데,
55. 雖萎絶其亦何傷兮　시들어 버리는 것 무에 안타깝겠습니까만,
56. 哀衆芳之蕪穢　모든 향초들이 황폐화 되는 것이 서럽습니다.

65. 朝飮木蘭之墜露兮　아침에는 목란에 방울지는 이슬 마시고,
66. 夕餐秋菊之落英　저녁엔 가을 국화의 떨어지는 꽃잎을 씹으며,
67. 苟余情其信姱以練要兮　진실로 내 마음은 곱고 결연하니,
68. 長顑頷亦何傷　언제까지나 안색이 창백한들 무슨 상관이리.
69. 擥木根以結茝兮　나무뿌리 캐어서 어수리를 한데 묶고,
70. 貫薜荔之洛蕊　벽려꽃의 떨어진 꽃술도 꿰었으며,
71. 矯菌桂以紉蕙兮　균계가지 들어 혜초를 엮고,
72. 索胡繩之纚纚　호승의 이파리로 긴띠 꼬았네.
73. 謇吾法夫前脩兮　나는 옛날의 어진 분을 본받아서,
74. 非世俗之所服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니,
75. 雖不周於今之人兮　비록 지금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76. 願依彭咸之遺則　팽함의 그 뜻을 따르려는 겁니다.

위의 싯귀들중 어떤 부분은 보다 內聖을 위한 '修己'의 차원이고 어떤 부분은 外王을 향한 '治人'의 차원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으나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 싯귀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木蘭·宿莽·蘭·蕙·留夷 등 11가지의 香草와 香木을 이용하여 자신은 끊임없이 심신을 연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1·12구에서 천부적으로 고운 품성과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을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라고 향초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比喩法은 바로 이 작품이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요 關鍵中의 하나로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본 작품은 1인칭 관점에서 서술되었기에 자신에 대한 肯定的 敍述은 진실성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데, 본 비유적 수사기교는 이러한 부담을 적절히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

로 이점에서는 「余」의 내성외왕을 향한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이 가히 군자답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내성외왕을 향한 「余」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余」는 본 작품에서 자신은 군왕에 대하여 忠誠스런 신하이므로 군왕을 위하여 언제나 직언을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는 國家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君王에 대한 자신의 충정에 대하여 주로 묘사하였다. 6단에서 重華에게 역사적 사실을 고하는 부분에서의 표현과 '故宇'·'故都'의 개념에서 국가의 개념을 엿볼 수 있는 정도다. 전제군주국가의 체제속에서 君王의 權勢는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어떤 모함속에서도 군왕이 서정주체 「余」의 충정을 인정하였더라면, 본 작품에서 나타내고 있는 悲劇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余」는 군왕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군왕에 대한 「余」의 忠貞은 直言·批判 등과 함께 나타난다.

17. 日月忽其不淹兮　　일월은 빨라서 오래 머므르지 아니하고,
18. 春與秋其代序　　봄과 가을이 번갈아 바뀌어,
19. 惟草木之零落兮　　초목은 시들고 떨어지니,
20. 恐美人之遲暮　　님께서 더딜까 두렵습니다.
21. 不撫壯而棄穢兮　　한창인 이때를 이용하여 잡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22. 何不改乎此度　　어찌 이러한 풍도도 바꾸지 않으시는지.
23. 乘騏驥以馳騁兮　　천리마를 타고 달리신다면,
24. 來吾道夫先路　　나야말로 앞서서 길을 인도하련마는.

이는 첫 단락의 끝부분으로 세월은 빨리도 흐르는데 임금은 정치를 바로 잡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만 흐르고 개선의 기미가 없슴에 간절한 자신의 충정을 밝힘과 동시에 임금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계속된다.

33. 惟夫黨人之偸樂兮　무리짓는 이들은 향락만을 구하니,
34. 路幽昧以險隘　길은 어둡고 험하기만 해라.
35. 豈余身之憚殃兮　어찌 내몸의 화를 꺼려서랴,
36. 恐皇輿之敗績　임금님의 수레가 엎어질까 두렵습니다.
37. 忽奔走以先後兮　바쁘게 앞뒤로 뛰어다니며,
38. 及前王之踵武　선왕의 발자취를 좇으려 했건만,
39. 荃不察余之中情兮　님은 나의 충정 아니 살피시고,
40. 反信讒而齌怒　오히려 참소를 믿고 진노하셨습니다.
41. 余固知謇謇之爲患兮　나는 충성스런 바른말이 병됨을 잘 알지만,
42. 忍而不能舍也　참다가도 그만두지 못하였으니,
43. 指九天以爲正兮　저 하늘로 증인을 삼으리,
44. 夫唯靈脩之故也　오로지 훌륭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45. 初旣與余成言兮　당초에 나와 언약하시고서는,
46. 後悔遁而有他　나중엔 마음을 바꾸어 딴곳에 마음 두셨나니,
47. 余旣不難夫離別兮　내가 소외되고 떠나감은 두렵지 않지만,
48. 傷靈脩之數化　훌륭한 분의 잦은 변덕이 안타깝습니다.

"路幽昧以險隘, 豈余身之憚殃兮" "指九天以爲正兮, 夫唯靈脩之故也" 등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 나라의 충신으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안타까운 심정이 잘 표현되어 군자로서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余」는 腐敗된 社會와 奸臣輩들을 비판하며,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忠臣의 典範이 되고 있다. 간신배들에 대한 비판은 2단 33구에서 "惟夫黨人之偸樂兮"라고 시작되어 전 작품을 통해 여덟곳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제3단에서 본격적으로 小人輩들의 탐욕스럽고 관록을 좇아 날뛰는 行態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다.

57. 衆皆競進以貪婪兮　사람들은 모두 앞다투어 욕심을 내더니,
58. 憑不猒乎求索　가득 차도 배부른 줄 모르고 좇아 다니면서,
59. 羌內恕己以量人兮　아이고, 제 소가지로 남을 가늠하며,
60. 各興心而嫉妒　각각 시새우는 마음만 돋군답니다.

61. 忽馳騖以追逐兮　　미친듯이 관록을 좇아 날뛰고들 있지만,
62. 非余心之所急　　이는 내 마음에 급한 바가 아니며,

위의 싯귀들에서 보듯이 간신배들에 대한 비판은 군왕에 대한 비판보다 한층 심해져서 대단히 直說的인 비난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는 군왕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사회가 부패한다거나 부도덕한 간신배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진다면 군왕에게 더 강한 비판이 있어야겠지만, 군왕은 절대권력자이므로 비난의 화살이 간신배들에게 오히려 집중된 것이다. 이어서 제4단에서도 「余」 자신을 군왕을 사모하는 여자에 비유하여 다른 계집들의 시샘을 지적하고, 아울러 世人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은 죽더라도 그렇게 타협할 수 없슴을 토로하고 있다.

87. 衆女嫉余之蛾眉兮　　계집들은 내 고운 눈썹을 시새워,
88. 謠諑謂余以善淫　　내가 음란함을 밝힌다고 입방아를 찧습니다.
89. 固時俗之工巧兮　　진실로 세속에선 교묘함만을 잘 취하여,
90. 偭規矩而改錯　　법도를 어기고 마음대로 어긋나게 바꾸도다.
91. 背繩墨以追曲兮　　먹줄을 비키어 놓고 굽은 것을 좇아,
92. 競周容以爲度　　다투어 비위 맞추는 것을 법으로 삼습니다.
93. 忳鬱邑余侘傺兮　　깊은 시름속에 나는 멍청하게 서 있나니,
94. 吾獨窮困乎此時也　　나만 홀로 이 시점에 곤경에 빠지누나,
95. 寧溘死以流亡兮　　차라리 갑자기 죽어 사라진다해도,
96. 余不忍爲此態也　　나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부정한 무리들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余」의 결의는 全篇을 통하여 흔들림이 없다. 「余」는 그러한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국은 5단에서 女媭에게 간곡한 책망을 듣게 된다.

133. 汝何博謇而好脩兮　　너는 어이 올곧고 덕 쌓기만을 좋아하여,
134. 紛獨有此姱節　　한껏 혼자만 이 고운 절개 지녔나뇨.
135. 薠菉葹以盈室兮　　녹두와 창이로 방을 채웠는데,
136. 判獨離而不服　　절연히 혼자만 다르게 이를 아니 걸치느뇨.
137. 衆不可戶說兮　　사람마다 일일이 애기할 수도 없는데,
138. 孰云察余之中情　　누가 우리의 진정을 살펴주랴?
139. 世並擧而好朋兮　　세상사람 모두 서로 추켜 패거리 짜기 좋아하는데,
140. 夫何煢獨而不予聽　　그 어찌 혼자서만 외로이 내말 듣지 아니하는가?"

외로운 충신에 대한 여수의 안타깝고 애타는 충고이다.

위와 같은 충신「余」는 결국 祖國을 떠나지 않고 강물에 투신함으로써 최후에까지 忠貞을 바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余」가 彭咸을 따르겠다는 결의는 3단(73-76)과 11단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인다.

373. 旣莫足與爲美政兮　　더불어 아름다운 정치를 펼 수 없으니,
374. 吾將從彭咸之所居　　내 장차 팽함님 가신 길 따르오리.

彭咸은 누구인가? 이 문제는 본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王逸의 註釋에 의하면 彭咸은 殷나라의 현명한 大夫로서 왕이 그의 충간을 듣지 않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7] 彭咸에 대한 王逸의 주석에 同意할 때, <離騷>의 抒情主體「余」의 최후의 충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비록 조국의 군왕과 당시 사람들이「余」를 버렸지만,「余」는 결코 내 일신만을 위하여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고, 彭咸의 유지를 받들어 내 나라 강물에 몸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4단의 마지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03. 伏淸白以死直兮　　깨끗한 몸을 유지하며 정도를 위해 죽는 것,
104. 固前聖之所厚　　본래 옛 성인들이 기리던 것입니다.

7) "彭咸殷賢大夫也. 諫其君不聽, 自投水而死." 王逸, ≪楚辭章句≫(臺北 藝文印書館, 1974.4), 32쪽 참조.

이상의 점들은 충신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간신배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고결하고 간절한 뜻을 가진 군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余」의 모습이 형상화된 긍정적인 측면이다.

2. 否定的 側面

(1)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人不知不慍 不亦君子乎?

孔子는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不知命, 無以爲君子也). <堯曰20-3>"라고 하였다. 또한 《논어》 첫장인 <學而>편 제 1귀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원망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人不知不慍 不亦君子乎)"라고 하였다. 그러나 「余」는 자신의 충정이 간절한 나머지 天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성내며 울부짖고 있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정주체 「余」의 충정어린 조바심에도 여전히 임금은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말하자 震怒하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원망한다.

77.	長太息以掩涕兮	길게 탄식하며 눈물을 닦노라니,
78.	哀民生之多艱	인생살이 다난함이 애달파라,
79.	余雖好脩姱以鞿羈兮	나는 비록 깨끗한 몸가짐을 좋아하여 조심도 하였으나,
80.	謇朝誶而夕替	아침에 바른 말씀 올리자 저녁에 버림받았습니다.
81.	旣替余以蕙纕兮	혜초의 띠를 둘렀다고 나를 쫓아내더니,
82.	又申之以攬茝	또한 어수리를 캐어 가진 것도 나쁘답니다,
83.	亦余心之所善兮	그래도 내 마음에 귀한 것은,
84.	雖九死其猶未悔	비록 아홉번을 죽는다해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85.	怨靈脩之浩蕩兮	훌륭한 분의 무분별함이 원망스럽나니,
86.	終不察夫民心	끝내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시네.

위의 10귀절은 제1단계의 4단락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많은 노력에도 임금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5단락부터는 후회하며 그 마음이 흔들려 갈등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제8단에서는 현군의 비유로써 미녀를 얻고자 하여도 못 구하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253. 閨中旣以邃遠兮　　규중은 이미 깊고도 멀며,
254. 哲王又不寤　　명철한 임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255. 懷朕情而不發兮　　나는 충정을 품고 있어도 펼 수 없으니,
256. 余焉能忍與此終古　　내 어찌 영원히 이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열거한 싯귀에는 직접적으로 君王에 대한 忠貞과 批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밖에도 6단에서 중화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역대 여러 임금들의 실정과 그 결과로 초래된 몰락상 역시 군왕에 대한 간접적인 忠告이며 警告이다. 또한 8단에서 나타나는 '必妃'에 대한 평가 역시 군왕에 대한 평가이며 실망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離騷> 속의 군왕은 변덕스러운데다가 忠臣과 奸臣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지극히 無能한 統治者이다. 「余」는 군왕에 대하여 충성스런 신하로서 직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무능한 군주는 충신의 간절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나라는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인간으로서 군주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울부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孔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君子는 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천명으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말 것을, 당시의 그리고 후대의 지식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를 수긍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의 전제군주체제에서는 군주는 절대권력자로서 국가의 상징이었으므로 간언할 수 있으나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余」의 성냄은 그 도를 넘은 것이므로 班固는 일찌기 屈原이 君臣의 道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余」의 심리적 갈등양상은 7단에서부터 10단까지 간신배들을 비난하는 대목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余」는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있다 라는 표현이 모두 다섯 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인용한 60句와 87구 그리고 212구와 251구·304구다.

211. 世溷濁而不分兮　　세상이 혼탁해 분별없어,
212. 好蔽美而嫉妒　　미덕을 가리고 시샘만 합니다.

251. 世溷濁而嫉賢兮　　세상은 혼탁해 어진 이 시새워,
252. 好蔽美而稱惡　　미덕을 가리고 사악함만 드러내누나.

303. 惟此黨人之不諒兮　　이 무리들 진실하지 못해,
304. 恐嫉妒而折之　　시새움에 꺾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질투한다" 혹은 "시샘한다"라는 개념은 대단히 상대적이다. 양측이 모두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바가 대단히 극단적인 양상을 띨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한 개념을 한 작품속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소연함으로써 역시 군자로써 유지해야할 '知命'·'人不知不慍'이라는 덕목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전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余」는 결국 彭咸을 따라 죽음으로써 志操를 지키고자 했으나, 이러한 決斷은 결코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제8단계에서의 갈등양상 또한 대단히 번민하는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5단락 첫구절인 제105구부터는 조국 초나라를 떠나야만 하는가 라는 회의가 시작된다.

105. 悔相道之不察兮　　길을 잘 살피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106. 延佇乎吾將反　　머뭇거리나 나는 돌아갑니다.
107. 回朕車以復路兮　　내 수레 돌려 오던 길로 돌아가리니,
108. 及行迷之未遠　　잘못 든 길 멀지 않은 이 때에.

109. 步余馬於蘭皐兮　　난초 널린 물가는 서서히 말을 몰고,
110. 馳椒丘且焉止息　　산초언덕엔 치달아 올라 잠시 쉬렵니다.
111. 進不入以離尤兮　　진언해도 용납되지 못하고 화만 당하느니,
112. 退將復脩吾初服　　물러나 내 처음 뜻을 다듬겠습니다.

이어 121-122구에서는 처음으로 "忽反顧以遊目兮, 將往觀乎四荒"라고 하여, 초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군주라도 자신을 인정해 주기만 한다면 섬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6단락부터 10단락까지에는「余」가 가야할 길을 찾기 위한 방황과 번민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6단락은 중화에게 역사적 사실을 고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비극을 비유적으로 고발하여 中正의 道를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화에게 고하는 말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77. 曾歔欷余鬱邑兮　　거듭 흐느낌에 내 가슴 미어져,
178. 哀朕時之不當　　나의 때가 맞지 않음을 슬퍼하네.
179. 攬茹蕙以掩涕兮　　부드러운 혜초 따다 눈물 닦으니,
180. 霑余襟之浪浪　　내 옷깃 적시는 눈물 주르르.
181. 跪敷衽以陳辭兮　　무릎 꿇어 옷섶 펼치고 하소연 하였더니,
182. 耿吾既得此中正　　나는 이미 환하게 중정의 도를 얻었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도 잠시, 7단락에서는 천상에 올라 다시 또 天帝에게 하소연 하고자 하나, 하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천상 역시 인간세계처럼 혼탁한 것임을 깨닫고 절망한다. 8단락에서는 賢君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비유로써 미녀를 찾아 나서지만, 高丘에는 미녀없음을 탄식하고, 다음으로 宓妃를 구하나 그 행실이 좋지 않아 포기한다. 이어서 有娀國의 미녀와 有虞國의 두딸을 차례로 구하려 하나 얻지 못한다. 9단락에서는 靈氛에게 占을 청하자 靈氛은 이곳 현실이 유독 정도를 벗어나므로 고국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떠날 것을 권유

한다. 제10단에서 神巫인 무함 역시 서둘러 이곳을 떠나 현군을 만날 것을 권유한다. 이상이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가라는 갈등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인 11단에서는 차비를 꾸려 길을 떠남에 飛龍·鳳皇·蛟龍 등의 도움과 호위속에 하늘의 찬란함 속으로 오르는데 문득 옛 고향이 내려다 보여, 마부도 슬퍼하고 말도 나아가지 못함에,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본래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최후를 결심하고 彭咸이 간길을 따르고자 한다.

임금과 당시의 사회로 표현된 조국이 「余」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국을 끊어 안고 죽으리라던 「余」가 떠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옳은가라는 苦惱와 心理的 葛藤을 겪는 과정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조국땅에서 꿋함처럼 자결함으로써 최후의 충정을 나타내고자 결의한 「余」는 위대한 精神의 勝利者이다. 그런데 「余」가 작품속에서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余」의 存在와 品性은 聖人的인 군자로써 가히 신적인 차원이었으므로 작품의 서사적 側面에서는 矛盾에 빠지고 있다. 이 점 역시 천명을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기인된 갈등으로 「余」는 군자라는 무게를 감당하지는 못하였다.

(2)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孔子는 "군자는 의리를 원칙으로 삼고, 예절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며, 겸손한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성실한 태도로 그것을 완성하니, 참으로 군자로구나(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衛靈公 15-18>)"라고 하여 겸양을 중요 덕목으로 삼았다. <憲問>편 4장에서도 "나라에 도가 있으면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은 겸손하게 해야한다(邦有道, 危言危行 ; 邦無道, 危行言孫.)"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의 제자 子貢 역시 "賜야, 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賜也亦有惡乎?)"라는 공자의 물음에 "저는 몰래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스스로는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며, 겸허함이 없이 스스로를 용감한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의 사

적인 부분을 들추어내면서 스스로는 정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합니다(惡儇以爲知者, 惡不孫以爲勇者, 惡訐以爲直者. <陽貨17-24>)"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소>의 서정주체「余」는 바로 이 '겸양'이라는 덕목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5-16구, 65-76구에서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이 '겸양'이라는 덕목과 괴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위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군왕이나 세상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화내는 것 역시 한계를 넘어 결국은 자신의 심신을 망가뜨림으로써 본 작품의 서사구조를 모순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余」스스로의 관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작품의 主要爭點이 政治이므로,「余」의 政治參與에 초점을 맞추었다. 9-10구에서 "紛吾旣有此內美兮, 又重之以脩能."라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이어 23-24구에서는 천리마를 타고 달리신다면「余」야말로 앞서서 길을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25-16·49-52·65-66·69-72·113-116·301-302구의 표현들은 훌륭한 품성과 뛰어난 才能이 있음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中華에게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평가에 근거하여 고한 사건이나, 천제를 찾아가고 미녀를 구하러 다니고 초나라를 떠나기 위한 준비과정과 여정속에서「余」는 초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余」는 봉황수레를 타고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 다니며 태양의 조종사 희화나 구름신 풍룡 그리고 이무기와 용을 부릴수도 있지만, 정치참여에서는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은 몇 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余」는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다. 두 번째로「余」는 정치적 능력은 충분했으나, 사악한 몰이배에 몰려 정치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화만 당하였다. 위의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인류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도로 부패한 정치현실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수완에 대한 평가는 접어둔 채, 정치현실에 대한 회의나 비판에 머므른 소극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며, 이는 스스로 정치의 생리를 잘못 판단하였

거나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로써 결국 현실정치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귀결된다. 이는 바로 정치적 현실과 정치적 이상의 괴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정치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余」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305-316구에서 볼 수 있듯이 時流에 밀려, 믿었던 蘭草마저도 구차스레 뭇꽃속에 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余」의 정치적 재능은 대단했다하더라도, 어리석은 군주를 중심으로 무능하고 腐敗된 當時의 政治構造는 不可抗力의 상황이었고, 「余」는 그 때의 정치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보다 君子的인 觀照의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본 작품에서 보여주는 「余」의 능력에 대한 대단한 自負心은 空虛한 것이었음을 반증함으로써 작품 자체의 서사적 구조에 치명적인 모순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Ⅳ. 결 론

1990년 5월 28일 貴陽에서 개최된 中國屈原學會 제4차 年例會議에서 중국학자들은 굴원에 대한 班固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오랜동안 사람들은 대부분 東漢 班固가 屈原을 평가한 것은 편파적이므로 긍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屈學史上 班固는 첫 번째로 肯定과 否定 두 개의 다른 각도에서 屈原을 평가한 사람으로, 屈原의 인품에 대한 평가는 비록 儒家 人生觀 중 비교적 보수적인 일면을 반영하였으나, 그의 평가 방법은 오히려 후인들에게 유익한 깨달음을 주었고, 班固는 첫 번째로 '辭賦家'說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文學史上 屈原의 지위를 확정했다고 하였다."[8] 이렇게 시작된 평가는 종합적

8) "長期以來, 人們多認爲東漢班固評屈失之偏頗, 不宜肯定. 但有學者提出, 在屈學史上, 班固是第一个從肯定和否定這兩个不同角度對屈原作出評價的, 他對屈原爲人的評價雖反映了儒家人生觀中較消極保守的一面, 但他的評價方法却給後人以有益的啓迪; 班固還第一个明確提出了'辭賦家'之說, 從而確定了屈騷在文學史上的地

으로는 屈原은 全 中華民族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어 다만 孔子만이 그에게 비교될 수 있으며, 그의 抵抗精神과 忠貞精神은 역사속에 투영되어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屈原의 인격은 부단히 승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 屈原은 일종의 중국인의 精神力量이 되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한편의 문장이 示唆하는 바는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이 대부분 屈原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班固의 주장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는 心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劉安과 司馬遷 그리고 揚雄과 班固로 부터 시작된 屈原의 「怨」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라는 상반된 평가가 아직도 중국학자들의 뇌리속에서 깨끗이 청산된 문제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屈原과 그의 작품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의 근원을 모색하고자, 1人稱 獨白體로 쓰인 그의 대표작 <이소>의 서정주체 「余」가 중국 자식인 들의 典範인 군자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서정주체 「余」의 행위를 공자의 군자관으로 조명해 봄에 있어서 크게 두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內聖外王'을 향한 「余」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知命'과 '人不知不慍' 그리고 '謙讓'이라는 세가지 덕목에 대한 「余」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내성외왕을 향한 「余」의 노력은 다시 추상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추상적인 표현은 木蘭·宿莽·蘭·蕙·留夷 등의 香草와 香木을 구하거나 심고, 그것을 몸에 두르고, 또한 이슬을 마시고 꽃잎을 씹어먹는 것으로서 자신은 계속적으로 심신을 연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1·12구에서 천부적으로 고운 품성과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을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라고 향초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比喩法은 바로 이 작품이 예술적으로 높은

位." 蔡靖泉, <中國屈原學會第4屆年會學術觀點綜述>,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1.1), 54-56 쪽

평가를 받고 있는 중요 關鍵中의 하나이다. 심신 연마를 표현함에 있어 이렇게 향초와 향목을 이용한 比喩的 藝術技巧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본 작품은 1인칭 관점에서 서술되었기에 자신에 대한 肯定的 敍述은 진실성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데, 본 비유적 수사기교는 이러한 부담을 적절히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점에서는 「余」의 내성외왕을 향한 끊임없이 치열한 노력이 가히 군자답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군왕에 대한 충성스러움, 시류 즉 부패한 간신배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성품, 그리고 위기에 처한 「余」가 어떤 최후를 선택하는 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余」는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인이 자부하는 애국시인 답게 한결같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으로 절개를 지키는 군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도 역시 군왕에 대한 태도, 간신배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최후 선택의 과정에 대한 것을 '知命'과 '人不知不慍'이라는 두가지의 덕목에 비추어 본 결과 군자답지 못했다. 「余」는 불가항력의 대세를 군자처럼 관조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화내고 비판하고 울부짖어 그 자신의 심신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謙讓'이라는 덕목의 측면으로 「余」의 행위를 평가하였을 때 부정적 측면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余」는 첫머리 12구에서 자신은 귀한 존재이며 도덕적으로나 능력면에서나 대단히 탁월하다고 자술하였고, 뒤에서도 전편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억울함 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余」의 자기 수양은 君子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였고, 정치가인 「余」가 정치적으로 실패하였으므로 그의 정치적 능력은 분명히 한계적인 것이었다. 「余」는 결국 자신에 대해 겸허하지 못하고 오만하였으므로 군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심신이 다 망가지는 비극의 깊이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離騷>의 서정주체「余」는 肯定的 側面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나 미래에도 한결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임에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否定的 側面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天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에 분노하며 謙虛하지 못하였으므로 君子의 위상을 견지할 수 없었다. 이는 곧 이 작품이 구성하고 있는 서사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뛰어난 傑作으로 人口에 膾炙되면서도, 屈原은 君子가 되지 못한다는 揚雄의 비판이 여전히 설득력을 잃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參考文獻>

王逸, 《楚辭章句》(臺北: 藝文印書館), 1974.4.
洪興祖, 《楚辭補註》(臺北: 藝文印書館), 1977.9.
朱熹, 《楚辭集註》(臺北: 藝文印書館), 1974.4.
傅錫壬,《新譯楚辭讀本》(第6版; 臺北: 三民書局), 1988.10.
中國詩歌研究會編,《中國歷代詩歌選》(北京: 中國詩歌研究會), 1978.12.
陣子展, 《楚辭直解》(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11.
曹大中, 《屈原的思想與文學藝術》(長沙: 湖南出版社), 1991.5.
林義正, 《孔子學說探微》(臺北: 東大圖書出版公司), 1987.
朱熹, 《四書章句集注》(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96.9.
楊伯峻 譯註・李章佑 朴鍾淵 韓譯, 《論語譯註》(대구: 중문출판사), 2002.
程樹德, 《論語集釋》(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90,8.
李學勤, 《周易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12.
皮錫瑞, 《今文尙書考證》(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9,12.
鍾肇鵬, 《孔子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程俊英, 《詩經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謝冰瑩等, 《新譯四書讀本》(제6판; 臺北: 三民書局), 1984.8.

蔡靖泉, <中國屈原學會第4屆年會學術觀點綜述>,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91.1.
周文康, <屈原生辰非吉辨>,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6.12.
金秉峘, <先秦儒家之君子觀研究(一): 以 《論語》爲中心>, 《중국학보》 36, 1996.

<ABSTRACT>

The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Yu(I)', the lyrical identity of 'Li-Sao', the masterpiece of Qu, Yuan(屈原), holds the status of a 'Junzi(nobleman)' which is regarded as a norm for the Chinese intellectuals, in order to search for the basic reasons for the negative criticism of his works.

'Li-Sao', which is a work of monologue style using the viewpoint of the first person, establishes the lyrical identity as the narrator. And as the analysis of the lyrical identity can be said to be a significant thesis of the epicness of a work, this paper may well be among the studies of epicness. In this paper the work is analyzed by grasping on the basis of Confucius' viewpoint of a 'Junzi' in the light of his Analects.

The behaviors of 'Yu', the lyrical identity, are analyzed from the positive and negative respect. The positive view is focused on the endeavour of 'Yu' for '內聖外王(nearly means "plain living but high thinking")', while the negative view is centered on the analysis of the behaviors of 'Yu' through the three virtues of '知命(know the fate, that is, realize one's fate and so feel no sad by

it.)', '人不知不慍(If others do not acknowledge me, I will not get angry.)', and 'humbleness'.

The endeavor of 'Yu' for '內聖外王' is much of a 'Junzi'. It can be found that he has been trying to his best constantly to train his mind and body, and has the noble mind always to place the country before his own interest.

In the negative viewpoint, the behaviors of 'Yu' cannot be said to be noble in the two respects of '知命' and '人不知不慍. He cannot catch sight of the irresistible situation absent-mindedly, but rages, criticizes, and howls.

Especially in view of 'humbleness', the negative aspects of his behaviors stand out much more. His moral training cannot reach the level of a 'Junzi', and his political failure as a politician shows the limitations of his ability clearly. In the end, by his lack of humbleness and arrogance toward himself, he is not equal to the status of a 'Junzi', resulting in the much more tragedy.

주제어 : 屈原, 離騷, 君子, 抒情主體, 敍事構造

KCI